

# 스마트팜 청년창업 중심지로 '우뚝'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사업... 7년 연속 전국 최다 지원 · 6.3:1 경쟁률 기록 전북자치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위한 다양한 지원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고 모집 경쟁률을 기록하며, 스마트팜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을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창업과 정착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사업에는 총 326명이 지원하여, 52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6.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로, 전북자치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준다.

전북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꾸준히 발전하며 청년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총 20개월 동안 진행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은 농업 기초부터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2개월 동안 배우고, 이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직접 종자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또한, 1년 동안은 독립적으로 작물의 생육을 관리하며 실제 농업 경영을 경험할 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고 모집 경쟁률을 기록하며, 스마트팜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있다.

교육 과정은 전액 무료이며, 실습 과정부터는 실습비와 영농 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을 통해 배출된 수료자는 총 196명이다.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착

하여 실제 농업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인원은 약 144명으로, 정착률은 약 73%이며, 그 외 수료생 34명(17%)은 연고지인 타지역에서 정착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도내 지역에 더 많이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교육 수료생에게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청

년들의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30억 원의 스마트팜 종합 자금 용자를 지원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농업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함께 제공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과의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정착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전북자치도가 농업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전북 지역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모범학생들, 미국 문화 체험 기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미국 뉴욕·워싱턴 D.C 지역 연수 제공



전북 모범학생 4명이 미국 동부지역 일대를 방문하여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동안 '2024 모범학생 미국 연수사업'을 통해 전북 모범학생들에게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지역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모범학생 미국 연수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3개 시·도와 미국 뉴욕 호남 파운데이션, 메릴랜드 호남향우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전북에서는 4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연수에 참여하였다.

선발된 전북 모범학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맨해튼 자연사박물관, NASA 박물관, UN 빌딩,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미국의 과학, 국제, 교육,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정주고등학교 정지영(1학년) 학생은 "해외 경험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히

고자 지원했다"며, "늘 꿈꿨던 UN 본부에 방문해 다양한 회의장들을 직접 둘러본 것이 기억에 남고 특히 전)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초상화를 UN 본부에서 보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뉴욕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호남 파운데이션 김영은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국의 청소년들에게 미국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연수가 참여 학생들의 인생에 값진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모범학생 미국 연수사업을 통해 도내 모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여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완료 당부

### 자궁경부암 등 관련 질환에 90% 이상 높은 예방 효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12~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HPV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고 12일 밝혔다.

HPV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등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HPV 예방접종은 이러한 질환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며,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2023년 기준)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HPV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와 협력하여 HPV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제공하며, 백신의 종류는 HPV4(가다실)이다.

접종은 지정의료기관 258개소와 시·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과 초경에 대한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에 받은 경우 총 3회 접종이 필요하

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여름물놀이터 성황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여름물놀이터를 성황리에 열어 장애인 서비스 기관 이용자 및 장애가족 200여 명에게 즐거운 여름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여름 물놀이터는 장애인의 특성상 수상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행사 중에는 체험 홈 4동과 본관 프로그램실을 개방하고 참여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물놀이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벤처펀드 결성 위한 바이오 분야 투자사 모집

### 도-정읍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위한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30일까지 공개 모집

전북자치도가 바이오 첨단산업 분야의 중·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레드바이오 분야 투자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동물용 의약품, 마이코

로바이옴 등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으로,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출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영호남 특구펀드'도 올해 하반기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펀드 결성액은 올해만 2,99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의 투자 규모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서울(830억), 경기(255억) 외에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출자 약정을 하는 지자체로는 유일하다. 이는 지역 내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출자 제안서 접수부터 1차 서류 평가, 현장 실사,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9월 20일

우선 협약 대상 투자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투자사는 연내 벤처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동안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해 보다 역동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창업가들 덕분에 전북자치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www.jonbuk.go.kr](http://www.jonbuk.go.kr))의 고시/공고란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http://www.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과(☎063-280-3227, 3273, 3277)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대아수목원, 숲길 구간 정비 완료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가을 산행 시즌을 앞두고 대아수목원의 숲길 구간에 대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은 목재계단과 보행 매트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노후된 로프와 침목계단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대아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도유림 숲길 조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른 구간에

목재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보행 매트와 평의자, 방향 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 낡은 로프와 침목 계단을 보수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대아수목원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제1전망대에 오른 뒤, 2, 3 전망대의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수목원의 전경과 함께 대아호

의 아름다운 호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아호 전망대를 지나 금남화 임도로 내려오는 약 6km 코스로, 탐방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대아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보다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http://www.jmaail.com)